

“우리아이 더 행복하게”... 광주시, 아동친화 선도

손자녀돌보미·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등 전국 최초 혁신정책
소상공인·취약계층 양육지원 강화... 영유아 발달컨설팅 첫시행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 'G-패스'·삼삼오오 이웃돌봄 등도 호응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 체감형 아동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국 최초 시행한 '손자녀돌보미'와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등 혁신 정책과 함께 어린이 버스요금 무료인 '광주 G-패스'도 도입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성과로 지난 6월 광역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획득,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아동친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했다.

◇ 아이 키움 부담 덜어주는 광주형 돌봄 정책

광주시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을 지원해 아동의 정서 안정과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손자녀돌보미'와 학부모의 유연근무를 지원하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소아과 오픈된 등을 막고 아이들이 적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확충했다. 또

남구·북구·광산구에 달빛어린이병원 1~3호를 차례로 확대 지정해 소아 의료 공백 최소화에도 나서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눈에 띈다. 소상공인 아동양육자에게는 아동돌봄서비스 비용으로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60만원을, 여성 1인 자영업자는 대체인력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육아풀앗이 정책 '삼삼오오 이웃돌봄' ▲다양한 출산·육아용품 기부와 나눔으로 순환되고 있는 '출산남 나눔가게' 등 공동체 기반 돌봄 환경 조성을 통해 육아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 아동복지 강화...건강한 성장 지원

광주시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결식 우려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 단가를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했다. 가정위탁 아동들의 강하고 안정적인 성장과 위탁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을 최대 45만원 인상했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 컨설팅'을 올해 새롭게 도입해 성장발달이 느리거나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맞춤형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통학 걱정 없는 광주형 G-패스 전면 시행

어린이 무상교통 시대를 연 광주형 G-패스는 광주형 아동친화 정책의 대표 성과로 꼽힌다. G-패스는 아이들의 대중교통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6~12세 어린이는 전액 무료, 13~18세 청소년 50% 할인된다.

광주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교통카드에 자동 적용되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통학 및 이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활동 범위 확대와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주는 광역시 중 처음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받은 만큼 '아동친화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도일 기자



서구, 급식관리지원센터 조리원 역량 강화 나서

조리원 맞춤형 교육... 현장 적용력 높여 식중독 예방 기대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9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조리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리실 관리수칙'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서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허영란, 이하 서구센터)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서구센터 임소영 팀장이 강사로 나서 ▲식중독 주요 발생 원인과 예방 방법 ▲노로바이러스의 특성과 대응법 ▲위생적 식재료 관리 및 조리실 환경 유지 요령 등을 설명했다.

특히 위생적 관리 사례와 비위생적 사례를 실제 사진으로 비교 제시하고, 참여형 퀴즈를 병행해 조리원들의 이해도와 현장 적용력을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조리원은 "막연하게만 느꼈던 조리실 위생 관리가 실제 사례와 설명을 통해 쉽게 다가왔다"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허영란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조리원의 위생관리 역량을 높여 식중독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위생교육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수를 기록한 건 바로 조리원 여러분의 땀과 헌신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서구가 '급식관리 1등 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구센터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257개 급식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식약처 주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 선정과 함께 전국 급식관리지원센터 236개소 중 식약처 우수상 수상기관 6곳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박석우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어린이집에 급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10일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에 필요한 우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급업체 모집 절차를 진행한다"면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식재료 안심 구매 공급업체 모집은 오는 22일부터 25

광주 남구,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급업체' 모집

오는 22~25일까지 접수, 납품 실적·전문성 등 평가

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관내에 분사 또는 지사, 영업소, 대리점 등을 두고 있는 어린이집 식자재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차량과 물류창고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또 다른 지역에 분사를 둔 업체의 경우 인터넷 발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유통기한 라벨 부착

을 비롯해 육류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 제출 등이 가능한 업체이다.

급식재료 공급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품목은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유제품까지 전체 식품군이며, 위 5가지 식품군 중에 3개 이상 품목을 납품하는 업체는 종합 업체로

간주한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구는 1차 서류 심사과 2차 현장 실사, 3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급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심사에 반영하는 주요 평가 항목은 사업 운영 실적과 수행 능력, 업체 신뢰성 등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인구가족담당관 보육지원팀(☎ 607-3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채일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복소e몰'을 전면 개편하고 이를 기념하는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소e몰'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확장하고자 지난해 7월 북구가 마련한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로 개설 당시 신속한 플랫폼 구축과 운영 편의성을 고려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자체 쇼핑몰 운영에 비해 체계적인 고객데이터 관리의 어려움, 디자인 및 마케팅 제약 등 장기적 관점에서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북구는 지난 7월 독립

북구, '복소e몰 새 단장' 기념 '전 상품 30% 할인 이벤트'

지난 7일 북구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복소e몰' 자사몰 오픈

도메인(buksoemall.com)을 사용하는 자사몰을 공식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복소e몰' 개편이 고객데이터 확보·분석과 브랜드 정체성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입점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쇼핑몰 이용자들의 편의성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과 공식 SNS 채널 운영에도 나설 계획이다.

북구는 '복소e몰'의 새 단장을 기념하고자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30% 할인된 가격(최대 1만 원)으로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고객 유치를 위해 이벤트 기간 중 신규 회원 가입 시 적립금 2천 원을, 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시 1천 원 쿠폰을 지급한다.

한편 새로워진 '복소e몰'에 신규 입점할

소상공인 모집도 진행 중이다.

모집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물건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또는 골목형상점가 내 사업자 등이며 별도의 입점 수수료는 없다.

입점 업체에는 ▲판매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 ▲온라인 마케팅 ▲브랜드 디자인 컨설팅 ▲고객관리 교육 등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복소e몰'에 입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602-410-6683)로 문의하면 된다.

/송현근 기자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 개입 사업 본격 추진

'놀이 발자국 골든타임' 지켜줘, 전문기관 연계 지원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관내 영·유아 640명을 대상으로 발달 지연과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놀이 발자국, 골든타임을 지켜줘'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발달 지연 위험이 있는 아동을 조기에 선별해 전문기관에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AI(인공지능) 헬스케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언어 재활 디지털 교구를 활용한 검사 방식으로 운영되며, 크게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 및 심화 검사 ▲보육교사·부모 대상 전문가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연계 등 2가지로 구성됐다. 가정과 어린이집이 함께 아이의 발달을 관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추진돼 그 의미를 더한다. 지역을 사랑하는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이어져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공공보육 가치'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성과공유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영·유아 복지 분야에서의 창의적 정책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사용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이라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동구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난 8일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조기 개입은 아이의 평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열쇠"면서 "놀이 발자국 사업이 아이의 성장뿐만 아니라 부모와 보육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